

선 예술의 창작, 무한한 문화 창조의 길을 열다

“성각스님의 선화를 읽다” 출판기념회와 ‘선서화 특별기획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성각스님의 선서화는 산사에서 수행생활을 하며 늘 만나게 되는 산, 물, 나무, 해, 달, 새와 같은 도반들을 담백하게 담고 있습니다. 참된 마음의 진여(眞如), 즉 ‘무심(無心)’을 표현하고 있어 감상하는 이로 하여금 마음자리를 평안(平安)하게 이끌어 주기도 합니다.

특히, 성각스님의 세계에서 종종 만나게 되는 산자(山字)의 형상이라든가 동자와 달마의 만남, 파격적인 달마의 모습 등에서 느낄 수 있듯이, 스님의 선화는 선적 발상에서부터 선심(禪心)의 표현과 그 세계가 가히 독보적이라 평가받고 있기도 합니다.

나아가 성각스님은 평소 한국불교의 중흥이 선법과 교법의 동시발전에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포교와 후학양성에 노력을 기울여, 작년에 국내 최초로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지정 제19호 선화보유자로 인정받아 종단의 경사를 더하기도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선화의 참의미를 되새길 스님의 논저 「선예술 그 본질과 전개」, 「성각스님의 선화를 읽다」의 반연록과 「성각스님의 선묵전 30성상 회고」 등 3권의 책을 동시에 상재(上梓)함으로써 선화의 세계를 흠뻑 느낄 수 있는 출판기념회이자 전시회인 만큼 그 감회가 매우 깊다하겠습니다.

선화(禪畵)나 선예술의 창작행위는 우리들에게 무한한 자유의

세계를 열어주고 그와 같은 자유세계는 무한한 문화창조의 길을 열어주고 있어, 우리들로 하여금 환희심을 자아내게 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우리 문화의 새로운 창조적 발전이 끊임없이 이어질 것을 기대하며, 종단 발전에도 큰 기여가 되리라 여겨집니다. 성각스님 선사화 무형문화재 지정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스님의 공덕이 많은 분들에게 향기와 감동으로 전해지길 기원합니다.

불기2558년 월 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